이기는 삶

농사의 법칙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총체적 난관의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다. 수출이 성장세로 돌아서며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폐업을 하고 서민경제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실정이다. 태풍과 홍수가 삶의 터전을 모조리 휩쓸고 지나간 폐허 위에 재건의 몸부림이 있듯이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얼마나 버틸지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망하는 상황에서도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 오히려 역으로 성장을 거듭하는 기업도 있다. 그렇게 또 경제구조는 새롭게 재편성된다.

그렇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경제구조가 바뀌었다고 해도 농사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농작물이 자라서 성숙하기까지는 먼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주고 열심히 물을 주어 자라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이상과 꿈을 실현할 수 없는 불확실한 경제구조로 인하여 삶이 위기를 겪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돕고 싶어도 원칙에 입각한 자연법칙을 무시하고는 안 된다는 말이다. 단순히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그럴듯한 성공의 공식만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수확(收穫)의 법칙이란 것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칙들을 우리의 개인적 삶이나 대인관계, 우리가 맺는 제반 사업상의 계약,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전반적인 조직의 중심에 위치시켜야 한다.

우리들 각자는 성공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한다. 조직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잘못된 길로 열심히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개인과 조직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바로 사명이고 목표이다. 그것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되어준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오르려는 사다리가 제대로 놓여있는지를 확인하는 잣대가 되어준다.

자신의 성품과 역량 면에서의 결함은 생각지 않고 단지 조직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밀고 나가다가는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것이다. 듣기 좋은 말이나 훌륭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만약 신뢰가 결여된 경우라면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과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야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재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뢰를 축적함으로써, 함께할 인재를 자신의 주변에 모음으로써, 가능한 일이며 이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 자산인 신용자본을 구축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장기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진짜 욕심쟁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원칙 중심의 리더는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잠재능력을 극대화한다. 또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조직에 자율과 자유를 보장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창조력과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힘을 갖는다. 그리고 기꺼이 스스로 조력자(助力者)가 된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양심 대로 사는 것이 신앙 생활
Living according to conscience is the life of faith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을까?
▶What must we do to lead a right life of faith?

양심대로 살면 신앙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다.
▶If you live according to conscience , you can lead a life of faith correctly.

양심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이 점점 힘을 얻어서 강해지는 고로 마귀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이긴자의 영으로 화하여지는 것이다.
▶If you live according to conscience and the spirit of God will gradually gain strength and become stronger, so you will become the spirit of the winner who can beat the spirit of the devil.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여지 없이 용납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양심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다.
▶If anything goes against your conscience, you should not accept it. The more you do that, the stronger your conscience become.

양심이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강해진다는 의미이다.
▶To have a strong conscience means that the spirit of God becomes stronger.

나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양심대로 사는 것이요. 양심대로 사는 것이 곧 신앙 생활이요, 양심대로 사는 것이 영생의 비결이 되는 것이다.
▶The key to win over me is to live according to conscience. Living with conscience is the very life of faith and the secret of eternal life.

양심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욕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For those who live in conscience, greed and selfish mind cannot be found.*

by Alice

영적 상징과 꿈 〈18〉

부제: 영적 상징으로 본 모세 (5편)

모세 앞에 등장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라(출애굽기 3:10)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모세의 항명(抗命) 아닌 항명이 계속됩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 하겠습니까?"

"제가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텐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라고 말이죠.

모세는 방금 전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하며 아예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어냐' 묻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 궁극의 질문입니다. 그는 인간을 대표해 신의 정체, 신의 본질을 묻고 있으며 결국 그는 자신의 본 모습, 인간의 정체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독대(獨對)하면서도 당돌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끝내 그 답을 얻어내는 이 장면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히 압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은 천사와 씨름을 하여 '이스라엘' 즉 이긴자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의 일화(창세기 32:25)를 떠올리게 합니다. 세 번째 인(印)을 뗀 하늘의 사람 야곱도 천사를 만나 땅에 엎드려 벌벌 떤 것이 아니라 그와 맞서 밤새 씨름을 하며 이기려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불구를 만들어 굴복시키지요. 야곱은 이 승부로 단죄받기는커녕 이스라엘 즉, 이긴자라는 이름까지 받았습니다.

인간적 입장에서는 이 장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낱 인간이 하나님의 천사에 대항하여 밤새 맞서고 대항하다니.. 게다가 하나님이 엄벌은커녕 이긴자의 축복을 해주시다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저 상명하달(上命下達)의 수직적 관계로만 이해하려는 자에게 이 장면들은 명백한 하극상(下剋上)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런 뻔하디 뻔한 수직적 상하관계 이상의 그 무엇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곧 '나'이다〉

'나 스승 아닌데, 엄만데...'

개인적인 기억입니다만, 예전에 제단 대학생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주님께 "스승의 날을 맞아 준비했습니다."라며 꽃과 함께 선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반응을 잊을 수 없습니다. 기뻐하실 줄만 알았는데 섭섭하신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스승 아닌데, 엄만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가슴이 멍해지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저희가 당신을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고 떠받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자식처럼 이물 없이 당신 한품에서 지내길 원했던 것이었겠지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요.

누군가 주님을 한없이 위대하고 높고 거룩한 존재여서, 그저 주님을 모시고 떠받들고 숭배하려고만 하는 자가 혹 있다면, 주님은 그를 보고 눈물을 흘리실지도 모릅니다.

'내 자식이, 내 분신이, 내 자신(自身)이 왜 나를 이렇게 남처럼 대할꼬....' 라며 말입니다.

이긴자의 말씀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식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한 몸이라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수직보다는 수평, 아니 수평을 넘어서 사실 한 몸, 하나의 관계로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과 순종만이 존재하던 그 시대에 불경스럽게도 하나님의 천사에 맞서 밤새 씨름했던 야곱이나, 당돌하게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냐' 묻고 그 답을 얻어내는 모세의 모습은 인간과 하나님의 수직적 관계라는 구시대적 클리셰(cliché:판에 박힌 듯한 문구 또는 진부한 표현을 가리키는 문학용어)를 온몸으로 부수는 선구자의 그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אהיה אשר אהיה '나는 곧 나이다'

모세의 끈질긴 질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나는 곧 「나」이다..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출애굽기 3:14, 15)

흥미로운 것은 야곱 또한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라 청했지만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창세기 32:29)며 가르쳐주시지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무 답도 주지 않던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한 모세에겐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왜일까요.

이는 이전 글에서 말씀드렸듯, 모세가 구세주의 그림자, 구세주의 상징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인(印)을 뗀 구세주 이긴자에게 해주듯 대답을 주십니다.

나는 곧 「나」이다."는 히브리어로 אהיה אהיה אשר (Ehyeh ahser ehyeh, 에흐예 아 "쉐르 에흐예)입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간단히는 'I am 「I」'입니다. "나는 곧 「나」이다."라는 말은 "내 이름은 바로 「나」 이다."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밝힌 자신의 이름은 「나」, 「I AM」, 「I」, אהיה, 「Ehyeh」입니다.

그러나 구세주의 그림자 격인 모세는 실제 하나님의 인(印)을 뗀 당사자가 아니므로 아직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7번째 인(印)을 뗀 이긴자의 등장 이후에야 이 대답의 의미가 밝혀지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포석입니다.

이 이름에 대해 이후 수많은 종교가, 신학자들이 매달려 왔지만 아직 뚜렷한 정설조차 없을 정도로 깊이 봉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긴자의 말씀을 들어온 자라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은 아주 단순한 직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본래 '나라는 주체영', '나라는 주체의식'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영(靈), 나라는 의식의 신(神), 마음의 주인 자리, 왕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긴자께서 처음으로 밝히신 바, 태초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의식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였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마귀에게 삼켜진바 되어, 마귀 옥에 갇힌 하나님으로 전락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이 실낙원(失樂園) 사건이며 이때부터 마귀의 영이 '나라는 의식'의 자리, 주체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나」, '나라는 주체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자리, '나라는 의식'의 자리에서 밀려나 무의식에 갇힌 양심 정도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가 아니라 '너', '그'가 되었습니다. 숭배와 기도와 신앙의 대상일 뿐인 남, 타자(他者)로 전락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자리, 주체영 자리가 바로 그 존재의 왕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빼앗긴 왕의 자리가 바로 '나'라는 의식의 자리였습니다.

나라는 의식, 주체영 자리,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마귀 '나'를 죽이고 다시 '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단 하나의 목표이자 바람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있어 다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그저 대상, 남으로 저 멀리 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신의 역사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숭배의 대상일 뿐,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되어서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니라 '남'으로 묶어 놓으려는 모든 시도는 마귀 신(神)의 역사,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내 이름, 내 정체는 바로 「나」야. 모세 너에게 있어서도 나야. 내가 「나」라는 주체의식의 자리를 되찾을 때, 비로소 나는 내 진짜 이름을 되찾게 되는 거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힐 자신의 이름은 「나」, 「I」 , 「Ehyeh」 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I AM」 has sent me to you.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출애굽기 3:14)

이 부분은 영어로 보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ites: 「I AM」 has sent me to you." (출애굽기 3:14)

여기서 「I AM」은 그냥 「I」 로 보면 간단합니다. '나라는 분'이라는 이상한 말이 간단히 「나」가 됩니다. 그리되면 얼추 "「I」 have sent me to you."가 되지요.

해석하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를 녹음기처럼 말하면,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 나를 너희에게 보냈노라."

잘 생각해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도 나요, 모세도 나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I am' 즉, 「나」 이다 보니,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라고 말하려던 것인데 "내(I)가 나를 보냈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적어준 대사를 그대로 읽은 것뿐인데, 모세는 하나님 자신이 되어 "나, 곧 하나님이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라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 깨닫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임을 밝히고 선언한 성경 상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세주의 그림자입니다.

구세주의 그림자격인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되고 구세주의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실제 마지막 인(印)을 뗀 이긴자는 "하나님이 나를 이기고 내가 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고 스스로 구세주 이긴자가 되셨군요."라 깨닫고 사람이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나'임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선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나」라는 이름은 조희성 이긴자에 와서 비로소 온전히 구현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 이름대로,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인 이긴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가르쳐 준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내어 한번 말해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다."

하나님이 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입니다.*

金擇 / 의사, kimtaek8@nate.com